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8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1. 29.(목) 14:00~16:3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 8작품(조각 8)
- ◆ 결 과 : 승인 3작품, 부결 5작품

위원장 :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번 안건 'Line and face-cube'

- 작가의 새로운 시도가 보이는 작품
- 놀이터 가까이 위치하여 어린이들의 도형과 방향에 따른 형태 인식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전보다 역동적, 다만 놀이터 옆이라는 위치적 특성상 모서리 등의 어린이 안전 우려
- 압축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강하게 드러나지 않음
- 본인 스타일에서 장소성에 어울리게 한 작품
- 조형적 긴장감이 공간에 어울림
- 무리없어 보이는 작품
- 조형물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시점의 변이만으로는 작품이 평이해 보임

: 2번 안건 '인(人), 인(人)'

- 적합한 작품
- 작품은 무난하나, 오리지널리티 아쉬움. 대중친화적이고 환경과 큰 문제없이 어울림
- COR-TEN steel로 만든,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조형이라고 생각함
- 단위체의 반복과 결합방식이 흥미로움, 재료적 특성으로 녹 등 유지보수 우려
- 역동적 조형성이 공간에 어울림
- 무리없어 보이는 작품
-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는 형태의 변화는 무난하나, 공공조형물에서 흔히 차용되고 있는 조형언어의 신선함은 아쉬움

: 3-1번 안건 'Morning Run'

- 작품은 좋으나 설치 장소가 다소 좁은 느낌이 듦, 인접한 벤치와의 간섭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친근감 있고 대중친화적인 조형작품. 안정성에 유의 설치 필요
- 일러스트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작품
- 설치 장소에 비해 다소 번잡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핸드페인팅 기법과 다채로운 색상은 신선함
- 유쾌한 색감과 선으로 공간에 활기를 줄 수 있을 듯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선보인 형식을 다시 반복하기 보다는 공간과의 더 적극적인 내용적 조응 필요
- 실제 시공 시 완성도 우려되며 환경과 부조화
- 유지보수 및 안정성 우려 있음
- 다른곳에서 선보인 형식의 반복으로 신선함 아쉬움
- 조각이 갖는 입체적 공간성 부족
- 회화적 기법이 외부 설치에 맞는 입체화되지 않음
- 실제 설치 된 작품은 사진상 보여지는 것 보다 상당히 허약해 보임

: 3-2번 안건 'Rider in Euphoria'

- 3-1에 비해 작품성이 다소 아쉬움
- 한 외국인 남자의 자전거 타는 모습에 관객친화적인 장점이 충분히 살아날지 의문
- 일러스트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작품
- 유쾌한 색감과 선으로 공간에 활기를 줄 수 있을 듯하나, 조형물이 장식적인 요소로만 기능할 수도 있을 듯함
- 다른 곳에서의 형식 반복으로 신선함 아쉬움
- 체험의 한계
- 중간이 공백이 다소 공공작품으로 부적절
- 조각작품으로서의 특성 없음
- 유지보수 및 안정성 우려
- 실제 시공 시 완성도 우려되며 환경과 부조화

: 4-1번 안건 '삼각의 정원'

- 마무리가 돋보이는 추상조형물, 형태나 색상 매력적
- 내용과 형식간의 불일치, 볼트 체결 방식에서 전체 주물 방식으로 변경 권고
- 익숙한 조형어법
- 평면적 꽃이 입체적 타원의 다른 기하로 변형되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조각 자체가 주는 인상은 매우 평이함
- 긴장감 있는 구성이 아쉬움
- 작품의 형식과 재료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조형물들과의 차별성이 없어 보임
- 형태감과 긴장감이 공간과 부조화
- 작가만의 독특한 조형어법에서 새로운 시도는 좋으나 익숙하고 평이한 어법

: 4-2번 안건 'New Sculptures'

- 적합한 작품
- 조형성이나 작품성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 폴리곤 형태는 매우 흔히 사용되어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어려움
- 견고한 대좌를 선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형적 의미를 다시 묻게 됨
- 설치 장소와 다소 불편한 동거일 수 있는 스케일과 배치
- 독창적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둔 작품
- 작가적 독창성이 돋보이며 신선함
- 개성있는 작품
- 작품들간 간격이 넓게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

: 5-1번 안건 '생명의 기원'

- 작품설명의 개연성이 떨어지고, 다소 지루한 형태의 조형물, 지나치게 질감에 치우친 평이한 작품
- 조명 유지보수 문제
- 조각의 테크닉은 뛰어남, 친화적인 형태로 보임
- 매우 평이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상징 모호
- 장소적 맥락성 아쉽고 조형적 평이성, 작품유지에 어려움 있음
- 조형언어의 신선함 아쉬움
- 공간에 비해 작품의 규모가 빈약해 보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다시 재고
- 환경과 부조화

: 5-2번 안건 '희망을 꿈꾸다'

- 같은 대상지에 유사한 작품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듦
- 소재나 주제의식 등 형식과 내용이 아쉬운 평이한 조형물
- 증간의 네모난 기둥이 조화롭지 못함
- 상투적인 조형요소의 일차적 조합이 아쉬움

- 직접적이고 장식적임, 형태 색깔 등에 새로운 시도 필요
- 장소적 맥락성 아쉽고 산만하며 작품유지에 어려움 있음
- 산만하고 조각적 밀도 아쉬움
- 표현기법이 현대적이지 않음
- 설명적인 공간 연출로 인해 작품성이 오히려 희석될 수 있음
- 환경과 부조화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8개 작품 중 안건 1, 2, 4-2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